

“밝은면만 조명한 불교연구 극복 과제”



한국불교사 연구입문 상·하
최병헌 외 저음
지식산업사 펴냄
각권 3만 원

“한국의 불교학은 불교가 사적이고 초월적 영역에 속하는 반면, 정치는 공적이고 세속적인 영역에 속한다는 전제에서 당연히 불교는 비정치적인 것과 내면 신앙에 국한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실제로 불교 연구도 자연스럽게 잘 정치적이고 밝은 측면에 초점을 맞춰왔다. 서구적 종교 개념의 수용에서 말미암은 이런 종교 인식과 방법론은 비판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2008년 퇴임한 최병헌 서울대 국사학과 명예교수는 1971년 한국불교사 연구를 시작으로 40여년간을 불교학 연구에 매진해온 학자다. 최 교수는 일본에 비해 한국의 불교학 연구 수준은 미미한 단계이며, 이제는 불교 교학과 교단에 대한 문헌 중심의 이해에서 벗어나 연구 주제도 민속, 여성, 언어, 건축 등 불교문화 전반에 걸친 연구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일본과 서양학계에서 후련받은 젊은 학자들이 귀국해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으며, 외국 학계와의 학문 교류가 활발해져 공동 연구가 추진되는 단계로 진입되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지적한다.

불교사 연구에 외길을 걸어온 최 교수가 이번에 27명의 중견·청년 학자들과 함께 1600년에 걸친 한국불교의 연구 성과를 총정리하고, 앞으로 연구 과제와 방향을 제시했다. <한국불교사연구입문>을 통해서다. 이 책에서는 한국불교에 관한 해외 연구 현황까지 폭넓게 다뤘다

이 책은 한국불교사 연구의 문제점에 대

한 비판과 반성에서 출발했으며, 불교사 연구의 환경 변화에 상응하여 새 연구방법 모색을 위해 기획됐다. 그래서 한국불교사에 대한 개괄적 소개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반성하면서 향후 연구 방향을 조망하는 연구입문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불교사상과 역사를 비롯한 불교문화를 총체적으로 서술해 지금까지의 한국불교사 연구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연구 경향을 가늠하는 데 좋은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문화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전통문화의 큰 자산인 불교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 발전 과정에서 큰 역할을 담당했으며, 그 위상의 크고 높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는 국가 문화재 가운데 불교 관련 유적과 유물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다는 사실이 증명해 준다.

현재 한국불교에 대한 연구는 민속학·신화학·문학·고고학·건축학·인류학·정치학·경제학·사회학·물리학 등 인접 분야로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주제도 불교교학과 교단에 대한 문헌 중심의 이해에서 벗어나 사회생활과 불교문화의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책은 주제를 31개로 나눴다. 상·하권에 걸쳐 7부로 구성됐으며, 고대, 고려, 조선, 근현대 한국불교와 함께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했다.

최 교수는 이 책에서 “유교는 지배 이념과 사회윤리로서 지배계층 위주로 받아들인 데 반해 불교는 일반 서민과 노비에 이르기까지 전체 구성원을 포괄해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며 “하지만 조선의 억불정책으로 불교는 주류에서 밀려나 교단이 축소되고 승려들의 질적 수준이 낮아졌고,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외국·변질함으로써 현대문화 발전의 주역에 담당하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교수는 “작



최병헌 서울대 국사학과 명예교수

최 교수 등 27명, 한국불교 연구총망라 통·호국 불교는 일본제국의 잔재 특성사례 모아 일반화 하는것 제고해야

금의 현실에서 불교계의 난맥상과 무기력한 모습은 고대와 고려 불교에 대한 인식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정확한 이해와 올바른 평가를 가라앉히는 장애의 요인으로 이어져 불교사학 연구는 한국 인문학 분야 가운데 여러면에서 가장 뒤쳐진 분야로 전락했다”고 안타까워했다. 최 교수는 또한 “역사 속에서 불교는 세속과 격리된 고매한 이상적 모습만이 아니라, 때로는 현실의 모순을 정당화하고 정치·경제적 이해를 관철시켜 온 역사를 지녀 불교학은 비판적인 이야

기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이 책에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일본불교의 잔재에 대한 설명도 소개하고 있다. 통불교론과 호국불교론이 대표적이다. 일본의 영향 하에 관심 갖게 됐지만 당시 그것은 일본 제국주의에 유린당하면서도 저항하지 않을 수 없었던 현실적인 생존 의미와 함께 일본 식민지사학에 대한 하려는 측면이 있었음을 설명했다. 그럼에도 일본서 빌려온 개념으로 침략 세력과 그 불교에 대한한 사실은 한국 근대불교사학이 간직한 역사 인식의 한계점이라고 꼬집었다. 최 교수는 또한 “1937년 중일전쟁 당시 일본은 전시체제를 갖추면서 전국의 본사 주지를 불러놓고 시국에 동참해 달라는 주문을 했으며, 총본산 건설을 추진한 것도 바로 일본이 우리 한국 불교계를 유린했던 징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므로 최 교수는 지금부터라도 이런 ‘호국불교’나 ‘통불교’라는 개념의 좁은 울타리에서 벗어나 특정 사례만을 모아 한국불교의 전체적 특성으로 일반화시키는 기존 방법은 재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최 교수는 ‘통불교’를 확산시킨 최남선의 안목도 높게 평가했다. 후대의 학자들은 육당의 ‘통불교’만 주로 인용했지 만 진정한 의미를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은 동아시아불교사의 전체적인 맥락과 전개 과정에서 한국불교사의 이해를 추구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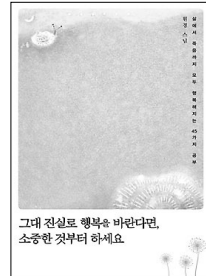
최 교수는 마지막으로 “이번 책에서는 삼신라말 구산선문 스그려의 천태종 창립 스여말 유불교체론 스근대불교사 등이 빠져있어 아쉬운 점이 있다”며 “앞으로 철학을 포함한 불교학 연구와 불교사학연구 등에 중점적으로 진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삶에서 죽음까지 모두 행복해지는 45가지 공부

그대 진실로 행복을 바라다면, 소중한 것부터 하세요

원경 스님 저음 | 팬덤북스 펴냄 | 1만3천원 1만6천원



삶의 우여곡절을 뼈저리게 경험하거나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과 거친 인연을 절박하게 거스르다 상처를 당한 사람들은 자신 또한 운명과 인연이란 단어에서 자유롭지 못한 존재임을 깨닫는다. 그토록 자신만만하고 기세등등했던 모습은 어느새 아침 햇살에 사라지는 물안개처럼 되고 만다. 결국 산다는 것은 운명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는 지난한 싸움이나 다름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태어남이 곧 죽음을 향하는 시작이라는 운명, 사람에게서 상처받지만 사람 때문에 살아가는 인연, 주체할 수 없는 욕망이 가득한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 모진 세상 풍파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에게 한 스님과의 만남이 어쩌면 작은 위안을 줄지도 모르겠다. 바로 북한산 형제봉 자락에 있는 작은 절, 심곡암의 주지 원경 스님이다.

매년 봄, 가을이면 전국 크고 작은 절에서는 산사 음악회를 개최한다. 사찰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열리는 산사 음악회는 지역민이 향유할 문화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불교 신도만이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개방되는 산사 음악회는 근엄하고 엄숙하게만 느껴지는 절과 스님들에 대한 경계를 허물기도 한다. 산속에 있는 절이다 보니 음악과 함께 감상하는 자연의 운치는 덤이다. 알음알음 산사 음악회를 찾는 이들이 많아지는 이유이다.

심곡암 주지 원경 스님은 산사 음악회의 개창자로, 산사 음악회를 통해 현실 속에서 진선미를 구현하고자 한다. 다도와 전통 무술에 조예가 깊은 원경 스님은 문학에도 관심이 많아 <그대, 꽃처럼>이라는 시집을 발간한 시인이기도 하다. 여러 분야에 대한 조예와 예술에 대한 관심이 산사 음악회를 30여 회에 걸쳐 계속 개최하는 원동력인지도 모르겠다.

그런 원경 스님이 시집에 이어 첫 산문집 <그대 진실로 행복을 바라다면, 소중한 것부터 하세요>를 발간했다. 산문집은 ‘인생 공부’ ‘세상 공부’ ‘마음 공부’ ‘죽음 공부’라는 네 가지 공부 주제를 이야기 한다.

원경 스님은 네 가지 주제를 면밀히 관찰하고 공부하면 자신 안의 의문, 집착, 망상,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한다. ‘삶에서 죽음까지 모두 행복해지는 45가지 공부’라는 부제가 달린 이 책은 의문, 집착, 망상, 두려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깨달음과 자유를 얻기 위한 지난한 과정에 대한 성찰을 쉽고 편한 말투로 전달한다.

원경 스님은 우선 태어남에 대한 의문을 버리라고 말한다. 삶이 힘들고 고단할 때마다 드는 ‘왜 태어났나?’라는 의문은 자신을 우주의 중심에 두어서, 자신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해서 일어난다. 모든 집착을 버리면 의문이 일어나지 않는다. 원경 스님은 누군가가 ‘왜 사느냐?’고 물으면 ‘살아 있으니까……’라고 답할 생각이 라고 한다. 태어난 업으로, 살아야 되는 업이므로 산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는 문제는 ‘왜’가 아니라 ‘어떻게’로 바뀌어야 한다는 충고이다. 그렇다면 집착과 망상은 어떻게 뿌리쳐야 할까? 사람들은 평생 집착과 망상에 흔들리며 산다. 조금만 힘들어도 울고불고 아담법석을 떨고, 조금만 즐거워도 웃음이 그치지 않는다. 마음의 뿌리가 깊고 견고하지 않아서다. 언젠가

‘인생’ ‘마음’ 등 네 주제로 서술 ‘죽음공부’ 인생서 꼭 필요해

그 자리에서 고요하고 당당하게 서 있려면 마음 단속이 먼저이다. 설사 마음이 일었다 해도 알아차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마음을 맑게 닦아 언제나 진리를 관찰하고, 마음의 뿌리를 더욱 깊게 내리야 한다고 원경 스님은 말한다.

집착과 망상을 어렵게 버린다고 해도 무엇보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기는 어렵다. 원경 스님은 죽음을 이기는 길이란 모두를 내려놓고 비우는 것이라고 한다. 모든 욕망과 미움에서 사로잡힌 나를 버리고 내면의 평온을 발견하라는 것이다. 죽음을 극복하면 자유인이 되고 부처가 된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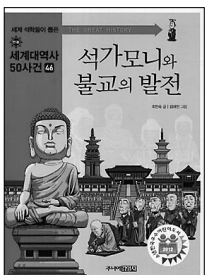
어떻게 살아야 할까 못지않게 어떻게 죽음을 맞을지를 늘 마음에 담고 죽음을 공부해 보라고 권한다. 열심히 죽음을 공부하여 두려움을 극복하고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으려면, 원경 스님은 죽음 공부야말로 마지막 공부이자 가장 귀중한 공부라고 말한다. 일상의 이란저런 일들이 휩쓸려 살다 보면 마음의 끈을 놓치게 된다. 자신에게 진정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산다. 원경 스님은 진정한 행복을 바라다면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부터 먼저 자각하고 실행하라고 말한다. 자신의 진실한 내면을 성찰하고 집착을 버리면서 마음을 다스리고 죽음마저도 공부하기를 권한다.

김주일 기자

동아시아에 널리 전파된 불교이야기 만화로

석가모니와 불교의 발전

조민숙 글 | 김대진 그림 | 주니어 김경사 펴냄 1만3천원



이 책은 중고등학교 사회탐구영역(역사, 사회, 윤리 등) 교과서에 나오는 세계 역사의 핵심사건을 뽑아 하나의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루었다. 21세기 최대 트렌드인 컨버전스는 사회 각 분야의 융합을 의미

하는데, 이는 사회 여러 영역은 물론 교육과 입시에서도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최근 60년 만에 대폭적으로 바뀐 스토리텔링 수학 교과서도입이 그 예이다. 즉, 수학문제를 풀기 위해서도 언어영역, 사회영역, 예술영역의 지식이 필요하며 과학과 언어영역을 풀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책은 이런 요구에 가장 확실히 답하는 세계사 만화 시리즈이다.

이 책은 동아시아 전반에 널리 전파된 불교 이야기를 담고 있다.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의 일생과 불교의 탄생지인 인도

와 발전 과정을 상세히 소개한다. 특히 석가모니라는 인물로부터 시작된 불교가 어떤 시대적 배경과 문화를 거쳐 현대에 이르렀는지를 역사적·문화적 관점으로 접근하여 기존의 종교 관련 도서와 차별화했다.

불교의 시작은 인도 카필라 왕국의 왕자였던 석가모니가 오랜 수행 끝에 얻어낸 깨달음에서 비롯되었다. 석가모니가 입적하자 그의 제자들은 석가모니가 남긴 불교의 교리와 가르침을 재해석하여 새로운 수행법을 낳았다. 이후 동아시아 각국에 전파되기 시작한 불교는 각국의 시대적·정치적 배경에 따라 국교로 수용되는가 하면 사교

라는 이름으로 탄압받기도 했다. 서양의 역사 전반에 기독교가 자리하고 있듯이 동아시아의 역사 전반을 불교가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대목이다.

뿐만 아니라 이 책은 불교가 남긴 예술과 문화의 가치에 주목한다. 동아시아 곳곳에 남아 있는 불교 사원과 불상들, 깨달음의 경지에 올랐던 각국의 승려들이 남긴 경전과 책들은 당시 문화와 생활을 고스란히 전해주는 문화유산이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가까운 중국과 일본의 불교 전파 과정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어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세 나라의 당시 역사적 상황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이와 함께 동아시아 불교의 역사와 발전 과정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김주일 기자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염주세트

값 30,800원

- 사은품 : 희담석합장주 (날개) 1만원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108염주 출시기념! 희담석 합장주 증정!

희담석 염주는

- 아계 걸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뚝이 늘 빠르던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은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물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옵니다.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지구 환경을 해치는 종이컵 대신 이제부터 (범어가 담긴 에코컵) 을 사용하세요. 늘 곁에 두고 음미하고픈 대항스님의 범어!

도자기 범어가 담긴 에코컵



종류	구 성	판매가
A set	마 음 + 대장부	9,000
B set	마 음 + 마 음	9,000
C set	대장부 + 대장부	9,000

3세트 이상 구매시 택배비 무료 (택배비 3,000)

1. 마 음 범어 : 그 마음 그대로 부처이시네
2. 대장부 범어 :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비범한 대장부가 되라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